

# 이중근 회장,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 국민대표로 헌화 “유엔 참전용사 숭고한 희생과 공헌 기억할 것”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해 온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겸 부영그룹 회장이 11일(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로 참석해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추모했다.

국가보훈부는 매년 11월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인 ‘부산을 향하여(턴 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기념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6.25전쟁 참전 22개국 대사, 보훈단체장,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국내 참전용사, 유엔군사령부 장병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유엔군 전몰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대표 4인이 헌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유엔군의 희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만큼 부산 소재 초·중등학교 학생부터 대한노인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4명의 국민대표가 헌화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국민대표로 참석한 이중근 회장은 “매년 11월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전 세계가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맞춰 1분간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한다”

며 “6.25전쟁에서 희생한 유엔 참전용사들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추모에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부영그룹 시무식을 통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하며 큰 관심을 받았던 이 회장은 이후 올해만 세 번째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며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특히 유엔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추모하기 위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제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회장은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 38개국)이 유엔 창설 이후 최초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으로 낯선 땅 한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한다면 장차 외교 관계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제안의 배경도 전했다.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난 8월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9월에는 40만 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가



이중근 회장을 비롯한 국민대표 4인이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추모했다.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북한이 유엔 산하 기구에 가입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 지정을 폐지했다.

이중근 회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제안에 앞서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5년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2.7m 높이에 국가별 상징작품과 승리의 상징 월계관 등이 새겨진 23개(한국 포함) 유엔 참전국 참전비 건립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해당 기념물은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과 함께 전 세계 2개뿐인 유엔 참전유산

으로 각국의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나열하는 ‘우정체(宇庭體) 기술 방식’으로 저술한 역사서『6.25전쟁 1129일』을 국내외 기관과 해외 참전국에 1000만부 이상 무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부영그룹 역시 2023년 공군 하늘사령관학제대에 100억 원 기부를 포함해 ▲국가보훈부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 후원 ▲6.25재단 후원금 10만 달러 기탁 ▲격오지 부대 시설개선 지원 28억 원 기증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 꾸준한 호국보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승원 기자



##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성가롤로병원과 함께하는 의료봉사

보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승진)은 지난 11월 8일, 지역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성가롤로병원 의료진과 함께하는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내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와 의료봉사단이 참여하여 혈압·혈당 측정, 수액 주사, 심장 조음과 검사, 투약 등 종합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자신에 건강관리

리 돌봄에 취약한 장애인에 세심한 진료와 맞춤형 건강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 지역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승진 보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은 “바쁜 일정에도 지역장애인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성가롤로병원 의료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봉사를 계기로 복지관과 병원이 동반자로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 함평군 대동면, 민관이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 '새단장' 모범

전남 함평군 대동면이 민관,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따뜻한 복지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11월 “대동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대장 김상모)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가구는 대동면 마량마을 주민이 직접 발굴한 사례로, 주거지 내·외부에 생활폐기물이 다량 쌓여 있었고, 도배·장판이 곰팡이로 오염돼 있었으며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어려운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군 희망복지지원팀과 대동면 복지공동체가 협력해 주택 내부 청소와 폐기물을 처리하고 도배와 장판 교체, 가전제품 지원 등 다각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국제로타리 3710지구 함평로타리 클럽(회장 고영한)과 ㈜그린테크(대표 노

용균)가 재능기부로 지붕 보수, 전등 교체, 싱크대 및 보일러 교체 등 주거 전반의 보수 작업을 지원했다.

특히 마량마을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며 행정과 민간,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상자는 “집이 새집처럼 변해 너무 감사하다”며 “올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미순 대동면장은 “행정과 민간, 그리고 주민이 한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도로공사 김준영 광주전남본부장, 혈액사업유공 감사패 수상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김동수)은 지난 10일 지역 내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김준영 본부장이 혈액원장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김준영 본부장, 한효정 고객부장, 김동수 혈액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고객부 주관으로 매년 3회씩 단체헌혈을 실시해 왔으며, 2021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총 15회의 단체헌혈 행사 진행을 총 307명의 임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했다. 특히, 트래킹 및 도로 안전점검 요원 등 현장직원들이 많이 바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꾸준히 동참하여 원활한 혈액수급과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 공공기관들의 모범이 되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직원들에게 헌혈 시 반가 실시 등 헌혈과 헌혈 후 휴식 시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광주전남혈액원이 펼친 동절기 ‘70일간의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서는 3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최우수 헌혈 지자체 3곳에 커피자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에서 제빵나눔, 급식 봉사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11월 말 적십자사와 취약계층 전달을 위한 김장봉사도 진행 예정이다.

김준영 본부장은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위해 적극적으로 헌혈로 나눔까지 실천하는 도로공사 모든 직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혈액수급이 어려워지는 2026년



동절기기간에도 광주전남본부 직원들과 힘을 합쳐 헌혈참여와 헌혈문화 확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원장은 “광주전남지역 나눔문화와 헌혈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 주시는 김준영 본부장님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

본부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들도 도로공사처럼 직원들을 위한 헌혈 시 공가 장려 등 헌혈자를 위한 예우 확대 및 지속적인 단체헌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